

독서활동지

교실 속 작은 사회 4 장애 장애를 왜 이해해야 할까요?



백정연 글 | 김민우 그림

주제어

#장애 #사회 #교실 #친구 #사회문제

교과연계

4 도덕 4. 함께하는 세상

5. 도덕 6. 인권을 존중하며 함께 사는 우리

3-1 국어 나 5. 인물에게 마음을 전해요

4-1 국어 가 1. 깊이 있게 읽어요

4-1 국어 나 6. 경험을 표현해요

어크로스
주니어

도서 소개

초등학생들이 가정 다음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 바로 학교. 이곳에서 어린이들은 어떤 하루를 보내고 있을까? <교실 속 작은 사회> 시리즈는 교실을 배경으로, 어린이들이 직접적으로 겪는 사회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 네 번째 책 《장애를 왜 이해해야 할까요?》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고 다름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그린다.

휠체어를 타고 가는 친구를 보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장애인 친구를 보며 ‘왜 특수 학교에 안 가고 우리 학교에 다니지?’ 하고 생각하면 나쁜 걸까? 청각 장애인과 소통하려면 수어를 꼭 알아야 할까?

장애에 대해 물어보면 안 되는 걸까?

장애인 권리를 위해 일하는 사회적 기업 ‘소소한소통’의 대표, 백정연 작가가 현장에서 겪었던 일들을 바탕으로 어린이들에게 생생한 이야기를 전달한다. 가장 쉽고 친절한 장애 이해 수업,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자.

독서 계획

단계	활동 내용
읽기 전 활동	• 책 표지 살펴보고 이야기 나누기 • 그림 살펴보기
읽는 중 활동	• 인물에 대한 정보 정리하기 • 내용 떠올리며 정리하기
읽은 후 활동	• 바른 표현 알기 • 내 마음 돌아보기

• 활동 내용 책 표지 살펴보고 이야기 나누기

1. 《장애를 왜 이해해야 할까요?》 표지를 보고 어떤 인물들이 나오고,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상상해 보세요.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을 모두 아래에 써 보세요.



- 예)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버스에 타는 모습이 나올 것 같다.

2. 뒤표지를 보면 친구들이 고리 던지기 놀이를 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일지 상상해 보고 옆에 써 보세요.



3. 뒤표지에 나온 친구들 가운데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있어요. 고리 던지기 말고 같이할 수 있는 활동이 뭐가 있을까요? 책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올지 한번 상상해서 그려 보세요.

• 활동 내용 그림 살펴보기

4.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읽기 전에 10~11쪽 그림을 살펴볼까요? 교실 분위기가 어떤가요?
그림을 봤을 때 드는 생각을 마음껏 표현해 보세요.



• 예) 가운데 맨 뒤에 앉은 남자애는 그림을 엄청 잘 그리는 아이일 것 같다.

읽은 후 활동

• 활동 내용 인물에 대한 정보 정리하기

1. 다음은 자폐성 장애를 가진 태훈이를 두고 은찬이와 민재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장면을 통해 은찬이와 민재의 성격과 맞는 것을 고르세요.

본문 20~21쪽

“야, 너 뭐 해? 왜 저런 애랑 얘기하고 있어?”

은찬이는 순간 당황했다. 민재랑은 3학년 때 같은 반이었고 친한 편이었지만, 민재는 가끔 말이 거칠었다. 은찬이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망설이다 겨우 입을 떴다.

“그냥…… 태훈이가 기차 그림 잘 그려서 보고 있었어.”

“재 좀 이상하지 않아? 말도 제대로 못하잖아.”

태훈이는 말없이 기차 그림을 계속 그렸지만, 은찬이는 태훈이도 민재의 말을 들었을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불편해졌다.

‘태훈이가 듣고 속상하진 않았을까? 뭐라도 말해 줘야 하는데……. 아, 어떻게 해야 하지?’

- ① 민재는 배려심이 깊고 다정하다. ③ 은찬이는 정의롭고 용기 있다.
② 은찬이는 할 말은 꼭 하는 성격이다. ④ 민재는 말이 조금 거칠고 태훈이에게 거리감을 느낀다.

2. 다음은 등굣길에 휠체어 사용자가 버스를 타는 모습을 본 소을이가 또 다른 휠체어 사용자인 윤아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두 사람의 성격에 대해 맞는 것에 동그라미 하세요.

본문 27~28쪽

“그게…… 버스 타는 거 불편하지 않아? 그냥 집에 있는 게 더 편하지 않아?”

윤아는 잠깐 생각하는 듯하다 씩 웃으며 대답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나는 집에 있는 것보다 학교 가는 게 더 좋아. 친구들이랑 같이 있을 수 있잖아. 너도 학교 오는 게 좋지? 휠체어 타는 것만 보고 불편할 것 같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나는 이게 내 다리야. 난 나대로 움직이며 살고 있어.”

소을이는 윤아의 말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 전보다 윤아가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다.

마음속에 있던 궁금증도 풀린 기분이었다. 조용히 있던 소을이가 용기를 내어 다시 입을 열었다.

“저기, 나중에 나도 너랑 같이 버스 타 볼 수 있을까?”

- ① 소을이는 (소심한 / 대담한) 편이지만, 용기를 내어 윤아에게 조금씩 다가간다.
② 윤아는 휠체어가 자기 다리라고 말할 만큼 (씩씩하다 / 장애를 부끄러워한다).

• 활동 내용 내용 떠올리며 정리하기

3. 자폐성 장애가 있는 친구들 중에는 긴장되거나 불안할 때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같은 동작을 계속하기도 해요. 이런 행동을 ‘상동 행동’이라고 하죠. 다음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 ① 시끄러우니까 귀를 막는다.
- ② 모른 척 절대 쳐다보지 않는다.
- ③ 괜찮다고 말하거나 기다려 준다.
- ④ 같이 큰 소리로 “시끄럽다고!” 하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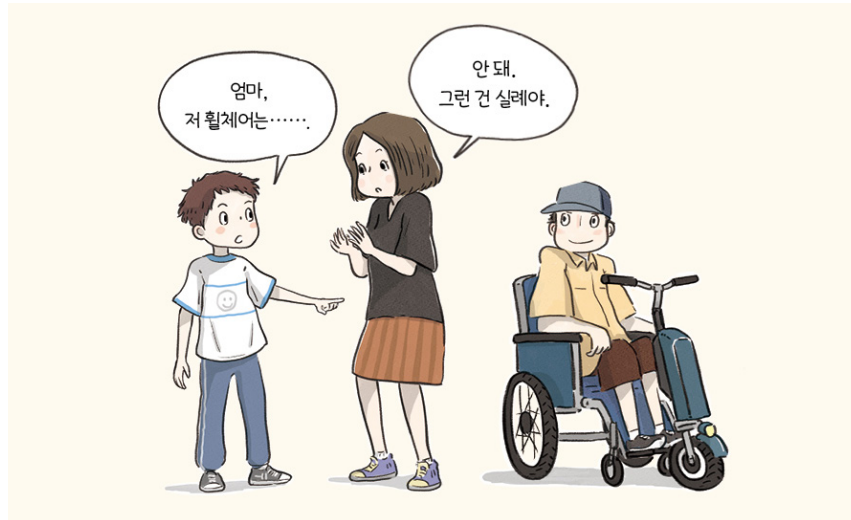
4. 시각 장애인에게 길을 안내하는 방법이에요. 괄호에 들어갈 문장 번호를 찾아 쓰세요.

본문 27~28쪽

시각 장애인에게 (③). 만약 도와 달라고 하면, 팔꿈치를 내밀어 잡을 수 있게 해 주세요. 시각 장애인이 여러분의 팔을 잡고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내하면 시각 장애인이 여러분보다 반 걸음 뒤에서 따라오게 되는데, (④)의 움직임에 따라 방향을 예상하며 걸을 수 있어요. 계단이나 턱이 있을 땐, “앞에 턱이 있어요.”, “계단 올라갈게요.” 하고 (②). 만약 시각 장애인 어른과 키 차이가 많이 난다면, 팔꿈치 대신 (①)를 잡고 걸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게 좋아요.

- | | |
|-------------------|-----------------------------|
| ① 어깨 | ③ 먼저 “도와드릴까요?”라고 물어보는 게 좋아요 |
| ② 미리 말해 주면 더 안전해요 | ④ 팔꿈치 |

5. 민재는 전동 휠체어를 보고 궁금한 게 많아서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엄마는 실례라며 절대 못 물어보게 했어요.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방법에 대해 틀리게 설명한 것을 고르세요.



- ① 장애가 있는 친구가 사용하는 도구가 궁금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건 그 친구의 마음이다.
- ② 궁금한 걸 묻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대신 어떻게 묻느냐가 중요하다.
- ③ 장애는 숨겨야 할 비밀이기 때문에 장애를 가진 친구가 대답하지 않는 건 당연한 거다.
- ④ 만약 친구가 대답하기 어렵거나 불편해한다면 “괜찮아, 말 안 해 줘도 돼.” 하고 기다린다.

6. 아래 그림은 같은 동작인 수어예요. 그런데 뜻이 서로 다르죠.

아래 그림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나요? 괄호에 들어갈 단어를 찾아서 써 보세요.



맛있다



맛있니?

손모양

표정

말

입모양

억양

수어는 ()만으로 말하는 게 아니예요. ()도 손처럼 아주 중요하죠. 기쁘면 미소를 짓고 놀라면 눈을 크게 뜨는 것처럼, 표정이 함께 있어야 뜻이 더 정확하게 전달돼요.

읽은 후 활동

• 활동 내용 바른 표현 알기

1. 다음 이유와 설명을 보고 잘못된 표현을 바른 표현으로 고쳐 보도록 해요. (힌트:본문 130쪽)

잘못된 표현	이유와 설명	바른 표현
정상인	‘정상’이라는 말은 어떤 사람은 ‘정상’, 어떤 사람은 ‘비정상’처럼 들릴 수 있어요.	
불구	‘불구’는 부정적이고 차별적인 느낌을 주는 말이에요. 장애가 있는 사람을 낮추어 보는 표현이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병어리 귀머거리	‘병어리’, ‘귀머거리’는 듣거나 말하기 어려운 사람을 놀리듯 표현하는 말이에요. 대신 상황을 정확히 표현하는 말이 바람직해요.	

• 활동 내용 내 마음 돌아보기

2. 이 책을 읽고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나요? 그림으로 표현해 보세요.



3. '교실 속 이야기'를 보며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혹시 주변에서 장애를 가진 친구를 보며 책 속 주인공
 들처럼 생각해 본 적은 없었나요? '교실 속 이야기' 제목을 떠올리며 내가 겪었던 일과 그때 어떤 생각
 을 했는지 써 보도록 해요.

교실 속 이야기

왜 하필 우리 반에!

같은 조 되면 망하는 거 아니에요?

장애인은 불쌍한 걸까요?

휠체어를 타고 버스를 탄다고요?

수어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물어봐도 될까요?

장애인은 무조건 도와줘야 할까요?

왜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할까요?

.....

.....

.....

.....

.....

.....

.....

.....